

인권상담소, 복지와 법 잇는 소통의 창구로

하일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상담소 소장

| 기사/사진 : 배현정 객원기자



“인권상담 뿐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HHH법률사무소 대표 하일호 변호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상담소 소장으로 위촉됐다.

이 상담소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 및 법률의 전용 상담 창구로 문을 열게 된다. 이러한 인권상담소 소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하 변호사는 “우선 복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저부터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며 몸을 낮췄다.

법의 영역이 워낙 방대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복지’만 깊이 있게 보기 어려운데, 인권상담소를 통해 많이 공부하게 되는 값진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고, 게으름 피지 않도록 지켜봐달라”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경제개혁센터) 참여변호사를 지냈고, 현재 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 자문위원과 국가발전기독교연구원 자문변호사 업무 등을 통해서도 남다른 사회 참여 정신을 펼치고 있는 하 변호사는 “국가에서 법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인권상담 등 사회활동을 통해 뛰어넘고 싶다”고 말했다.

생산적 복지로 나아갈 길 모색

협회 인권상담소 소장으로서 우선 그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생산적 복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할 생각이다.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해요. 마냥 ‘퍼주기식’(소비적)으로 복지 예산이 쓰인다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후 복지 예산을 더 확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최근 ‘2007년 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는 뉴스를 듣고 기쁜 마음 한편 의구심도 들었던 하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선심 쓰기식으로 예산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따라 복지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또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발성’ 기부는 어느 선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제 등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부 문화 활성화는 사회 전반에 보다

성숙한 정신문화를 형성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부터인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척박한 사회가 됐잖아요. 이러한 매일수룩 기부를 통해 ‘배푸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정신이 치유되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적 사고 사회에 전파하려

하일호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 6년차.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30기)한 뒤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을 당시부터 현대건설 소액주주 투쟁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거대자본(대주주)에 맞서 경제윤리적 법적 정의를 구현해온 민주변호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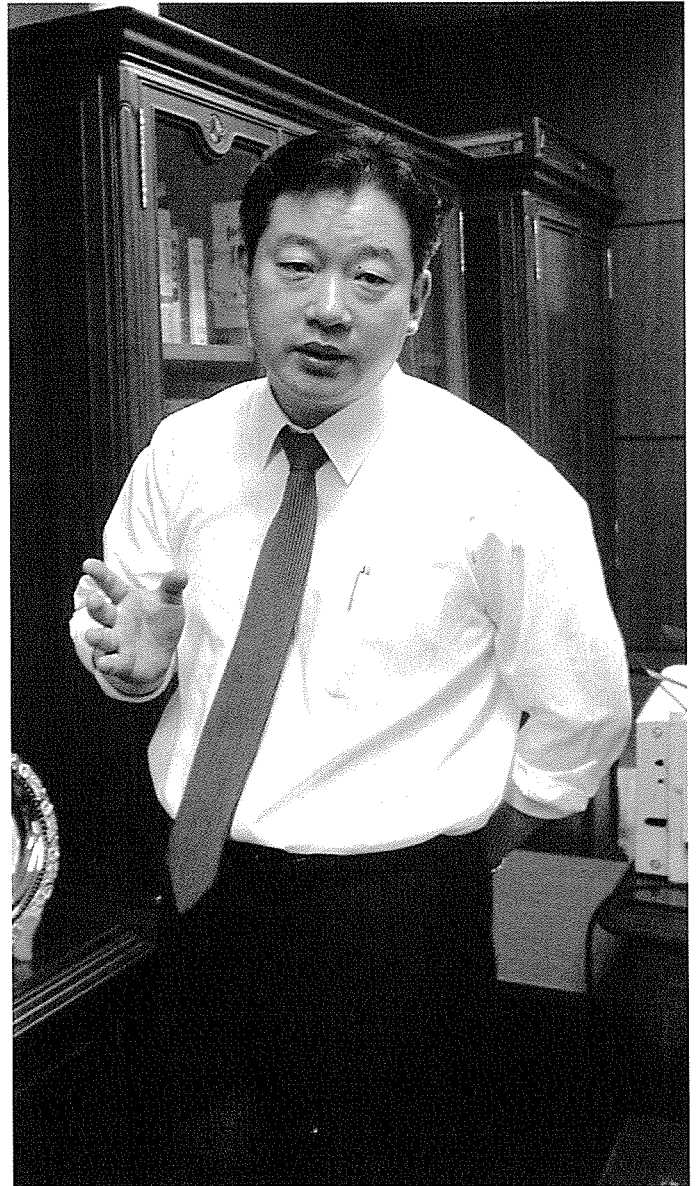
“대학시절 우연히 은행에서 한 잡지에 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곱 살 짜리 어린이가 벽돌을 나르는 장면이었죠. 아이 아버지가 노예라, 그 어린 나이에 노동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 다짐했지요. 이런 일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야겠다고”

그러한 마음을 오늘날까지 굳건히 지켜내게 한 힘은 신앙이었다. 14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이후 검정고시로 초중고 과정을 마쳤다), 그는 신앙으로써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신앙은 기댈 곳없는 그의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해줬다.

“14세 때부터 학교 대신 근로 현장에 나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돈도 없는 사회의 최하층민이어서 어디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믿고 의지할데가 없어 그럴수록 신앙에 더 절실하게 매달렸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소원이 이뤄졌으니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 그는 가장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회의 그들을 절실히 다시 되돌아본다.

그는 “변호사란 직업이 즐겁고 편한 사람을 주로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보고 일하자면 무척 험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성직자와 비슷한 하다”고 말했다. 이번엔 상담소 소장을 맡으면서 “과거보다는 개



선됐지만 아직 열악한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사회에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법무법인 다인 설립(구성원 변호사)을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현재 HHH법무법인을 비롯하여 환경에너지 기업 대산E&C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